

94. 9月

〈유럽〉

유럽에서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인 PV Toledo가 발전을 개시하였다. 스페인 중부 Toledo 지방의 La Puebla de Montalban에 설치된 1MW급 발전소는 16,700m²의 면적에 해당하는 7,936개의 태양전지로 이루어졌다.

PV Toledo사의 지분은 스페인의 Endesa, 독일의 RWE Energie, 스페인 및 독일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다.

PV Toledo는 연간 약 1.7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유럽최대의 태양광 전력회사이다.

〈日本〉

일본의 후지전기화학은 중국 아모이에서 스테핑모터의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모이 富積電子유한공사에 제조설비 1식을 도입하여 11월부터 월간 10만개 규모로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50만개, 96년에는 90만개로 단계적으로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생산이전에 따른 현지수요의 증가에 대응, 저렴한 임금코스트를 활용한 대폭적인 코스트다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96년까지 전생산량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國內〉

정부는 기계류·부품·소재의 대일 역조 시정을 위한 국산화 대상품목을 선정, 고시했다.

상공자원부는 제2차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에 따

라 지난 5월부터 38개 생산자 단체로부터 416개 품목을 신청받았으며 기개발 및 국산개발 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해 최종 396개 품목을 선정. 이들 품목이 개발되면 연간 13억 5천만달러의 수입 대체효과와 8억 9천만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전망했다.

〈日本〉

일본의 마쓰시타 전기산업은 태국의 용접기 생산을 배증하기로 했다.

내년 3월 태국의 합작회사 “태국파나소닉 용접기”의 공장증설에 착수하여 '95년도중 완성, 가동시켜 '96년도엔 현재의 2배인 10억엔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日本〉

일본의 수미토모상사는 말레이시아 전력청에서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약1백20억엔으로 수주했다.

기존의 가스터빈에 새로이 배열 회수 보일러와 증기터빈을 연결하는 것으로 가스 증기의 병용에 따라 현재의 출력 17만 킬로와트에 9만9천킬로와트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납품상대는 말레이시아북부 트렐가누주에 있는 파카발전소로 신설되는 96년말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國內〉

상공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산업기술개발 자원기반을 마련. 기존의 개별 과제 중심에서 자원분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산업기술 수요조사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하고 공업기반 기술개발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관련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 확정된 후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世界〉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캐나다의 하이드로 퀘백 등 3社가 일본이 추진하는 수소이용 전기생산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日통산성이 약 3천억엔을 투자 오는 2020년에 완성하려는 이 사업은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日本〉

일본의 소형 직류모터 전문메이커인 이가라시 전기제작소는 이달부터 인도에서 본격 생산을 개시하기로 했다.

마드라스시에 건설해온 합작공장이 완성됨에 따라 소형 직류모터등을 초년도에 연간 1백50만개를 제조할 계획이며 부품은 중국 등에서 조달할 방침인데 미국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새공장의 운영모체가 되는 것은 이가라시전기와 현지의 종합전기메이커 그랜드푸른 그룹, 미국시카고의 인터내셔널 코포란트가 작년9월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CG 이가라시 모터’이다.

〈國內〉

공진청은 전기전자시험 연구원 등 5개 시험검사 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난 4월까지 6개 기관으로 연말까지는 10여개로 확대할 전망으

로 선진국에서는 국가간 상이한 시험·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장벽 해소의 수단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日本〉

일본 마쓰시타電器는 中國杭州에 가전용 소형 모터를 제조·판매하는 합작사를 설립한다.

새회사「杭州松下馬達有限公司」는 마쓰시타와 현지의 2개 기업 등 3개 업체가 합작한 것으로 杭州經濟技術開發區管理委員會의 인가를 얻었으며 자본금 16억엔으로 출자비율은 마쓰시타 측이 70% 중국측이 30%이다.

〈濠洲〉

호주의 퍼시픽 던롭社는 인도네시아측과 함께 자카르타 근교에 통신케이블 제조, 판매 합작업체를 설립했다.

퍼시픽 던롭社는 自社가 올렉스 인도네시아社로 명명된 합작업체에 대해 60%의 지분을 소유하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케이블산업에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현지인들로 구성되며 95년말경부터 일반 통신케이블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며 光케이블을 비롯한 여러제품으로 생산품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日本〉

일본 혼다 자동차는 중국의 민동 전기그룹과 소형 가솔린 발전기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전력발전기 및 전기장비 생산에 주력, 공공건물 및 상업, 건축현장등에 사용되는 소형 발전

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작기업의 발전기 생산능력은 가동초기 연간 4만대 정도이지만 98년까지 8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 설비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나 투자재원 미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 총 8천8백MW의 대규모 전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 10월

〈中國〉

중국이 세계4위의 전력생산국으로 급부상 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가 지역내 가맹원조 대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력사정 조사에 의하면 발전설비의 급속한 증가로 미국·러시아·일본·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93년도 발전량은 8천1백59억kWh 달했으며 이러한 전력생산량은 ADB에 가입하고 있는 원조대상국 전체 발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81년부터 93년까지 연평균 8.1% 비율로 성장시켜 왔지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미치지 못해 공급과 수요의 격차는 20%에 이르고 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산업화 추진에 따라 매년 8% 상당의 전력수요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96년까지는 적어도 120~150MW, 2000년까지는 550MW 상당의 추가 전력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사(USAID 지원조사)에 따라 최근 신정부에서는 신규 발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력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화력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입찰에 의한 BOT(15년간) 방식으로, 40MW 2기의 디젤발전소를 콜롬보 인근 공단지역인 사푸가스간에 설치하고, 150MW 석탄발전소를 서북부 해안 Puttalam 지역과 남부해안인 마웰라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데 이어 동북해안 트린코말리 지역에는 300MW 석탄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國內〉

정부는 내년도중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년보다 24% 늘어난 1조 2,78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올해보다 1,100억원이 늘어난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보다 늘어난 1,305억과 2,5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설비 및 운전자금에 사용될 금융자금으로 중소기업 전담은행자금 3조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등 총 24조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臺 灣〉

電力사업을 국가가 독점해 온 臺灣은 민간 및 외국회사들의 투자를 허용, 독점을 완화했다.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臺灣 전국 발전시설용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전시설을 건설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들도 합작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외국자본 비율은 30%를 넘지 못한다고 밝혔다.

臺灣의 국영 대만전력회사는 전기공급을 독점해 왔으나 현재 민영화가 진행중이다.

〈日 本〉

일본의 마부치 모터는 소형모터 제조장치의 대만생산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본사공장에서 60%를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중 국내 생산비율을 30%로 낮춰 대만에 점차 생산을 이전할 방침으로 제조장치의 생산도 해외자회사로 이전, 장차 100% 해외생산으로 할 예정이며 생산효율화를 위해 라인의 핵심부분인 모터제조장치를 內製, 모두 해외의 모터생산자회사용으로 출하하고 있다.

〈國 內〉

상공자원부는 내년도 공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4.2% 늘어난 2,615억원으로 확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치화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와 신기술 및 제품디자인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사업에 950억원보다 26%가 증가한 1,200억원을 책정했으며 2천년대 선도 산업이며

신경제 산업발전 전략부문의 핵심 과제인 정밀전자, 전자기계, 신소재, 항공 등 첨단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올해보다 9% 늘어난 54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日 本〉

일본의 히타치제작소는 산업기기 및 전력이 일부등 중전기기의 기계가공을 맡을 '分공장'을 해외에 처음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히타치 쑤치우라등 전기 전력기기제조의 복수 국내주력공장과 해외분공장을 온라인과 TV카메라로 연결하여 국내각공장에 부품 반제품을 공급, 국내에서 조립하며 설치장소는 필리핀이 유력하며 4~5백명 규모를 예상, 대부분 현지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대만은 기존 발전능력보다 많은 2만5천 1백29MW의 발전설비를 2천년대초까지 건설하고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2천 5백 18MW를 수력발전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日 本〉

일본 구보타와 전기메이커인 산요전기는 차세대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97년까지 공동개발 한다는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금년도부터 통산성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 95년도에는 모델주택에 대한 필드테스트 96년도 양산화테스트를 실시 97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世 界〉

일본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수소의 에너지화를 위해 美·英·캐나다와 수소發電기술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일본통산성은 "에너지의 脫석유화"를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수소 에너지 개발계획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스탠포드 연구소, 영국의 롤스포드 연구소,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런던大연구소, 캐나다의 하이드로퀘벡社 등 해외의 5개 유력기업 및 연구소를 동참시키기로 결정했다.

〈日 本〉

일본의 메이텐샤(明電舎)는 태국에서 配電盤의 현지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태국의 전기설비엔지니어링기업 태국明電舎(방콕시)가 방콕시교외의 공업단지에 1만2천평방미터의 용지를 취득, 95년 6월 가동을 목표로 제1기에 2억5천만엔을 투자, 연건평 2천 4백평방미터의 새공장을 건설키로 했으며 동사가 해외에서 배전반을 생산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두번째이다.

새공장의 건설은 빠르면 11월중 착수할 예정이며 부품류의 대부분을 현지조달하여 코스트다운을 추진, 제품은 태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외에 주변국가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日 本〉

마쓰시타(松下)電器産業은 멀티미디어사업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CATV, 자동차용 TV사업을 강화를 위해 마쓰시타는 얼마전 영상시스템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이들 사업을 분리, 독립시키면서 '케이블TV 사업추진부'와 '자동차TV 사업추진부'를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사업추진부는 마쓰시타의

다른 사업부 및 마쓰시타 通信工業과 연계, 시스템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담당한다.

94. 11月

〈國內〉

고유업종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중소기업 보호시책인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대상품목이 내년부터 크게 축소돼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최근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추천기준을 마련해 통보해 왔다.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 요건을 보면 품목당 생산조합원이 3개업체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6개업체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연간 소요물량도 1억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했다.

〈日本〉

日本電産은 중국에서 팬모터등 각종 모터를 대폭 증산기로 했다.

중국에서의 생산증강으로 코스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말부터 내년봄에 걸쳐 스핀들 모터 팬모터 DC모터의 생산량을 2-3배이상으로 확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현지부품조달도 각각 7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한편, 중국 대련시에 설립한 '日本電産(大連)유한공사'로서 스핀들 모터(전공정)를 내년봄 현재의 월간 50만대에서 1백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印度〉

인도는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일본의 마루베니 도시바등 일본기업 15개사가 사업화 조사를 마치고 마하라슈트라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인도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건설에서 운영까지 일괄 하청을 받는 빌드 오퍼레이트 오운(BOO)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약 7백 50억엔 규모의 신규사업이 금년안에 가동될 예정인데 마하라슈트라주 카파르게타지역에 25만킬로와트의 발전소 2기를 건설한다.

〈世界〉

스웨덴-스위스합작 전기엔지니어링그룹의 ABB 파워 제너레이션사업본부와 미국 파이로파워사는 폴란드소재 투로우 발전소의 2기의 20메가와트급 발전기 업그레이드계약을 3억 6,500만달러에 수주했다.

또한 이 컨소시엄은 투로우 발전소에 추가로 4기의 발전기 설치 계약권을 확보했다. 이 프로젝트 초기단계의 설비는 ABB사가 90년에 인수한 ABB 자메크사와 파이로파워사가 최근 인수한 파코프사 등 현지공장에서 제작할 예정이며 투로우 발전소의 발전기 및 보일러는 EU의 환경기준에 적합하며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日本〉

일본의 三井물산은 태국전력청에서 복합형 가스화력발전설비를 풀턴키(일괄청부) 방식으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금액은 2백 50억엔. 출력이 약60만킬로와트의

대형 시설로서 중심이 되는 터빈은 美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조달기로 했다.

납품상대는 방콕의 남쪽 약 50킬로미터에 위치한 사우스 방콕 발전소이다.

三井물산은 가스·스팀 양 터빈의 생산을 GE에, 배열회수 보일러를 벨기에의 코카틸 메카니컬 인더스트리, 장치공사는 일본의 도시바플랜트 건설에 발주기로 했으며 97년 6월에 전체완성을 예정하고 있다.

〈日本〉

일본의 카스가 전기는 중국 西安市에서 모터제어에 사용하는 범용 인버터의 합작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西安理工大學 및 현지기업등과 제조 판매회사를 설립, 금년말부터 생산을 개시, 전량 중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초년도 1억엔에서 출발, 이후 연간 50%이상의 페이스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중국에서 범용 인버터의 제조에 나서는 것은 일본기업이 처음이다.

합작회사는 西安春日電機로 지난 9월 설립. 출자비율은 카스가전기 51.1%, 西安理工大學 24.5%, 西安前進실업공사 19%, 카스가의 홍콩 대리점인 파워 컨트롤 홍콩 5.4%이다.

〈國內〉

공진청은 ILAC 총회 및 한·EU 각료회담에 대표단을 파견, 외국과의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40여개

국가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 기술 위원회등 10여개 관련 국제 기구에서 참가, 국제무역에서 시험결과 및 시험. 검사기관 인정의 역할, 국가간 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 평가사 자격 및 훈련등에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부는 주요교역 상대국과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 국내 기업이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출이 가능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中國〉

上海市가 중국 최대의 전력생산 설비 제조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上海市 소재 일렉트릭 엔터프라이즈 그룹은 중국 전력생산설비의 3분의 1이상을 생산했으며 올 상반기의 생산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으며 설립에는 上海市의 전기기계공장 및 스팀터빈공장, 보일러공장 및 증장비공장등이 참여했으며 미국으로부터 화력발전설비 제조기술을 도입, 제품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내 및 파키스탄으로부터 대형 화력발전소용 발전시 공급프로젝트를 수주. 앞으로 매출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

美國은 최근 파키스탄의 발전소 건설,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등 에너지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40억 \$을 투자하기로 결정. 97년까지 수력발전소 3개, 화력발전소 9개 등 총12개 발전소를 건설, 3,507MW를 공급할 예정이며, 파키

스탄 정부는 현재 40%의 낮은 전력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8차 5개년 계획기간중 PR 1,020억 규모의 전력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日本〉

일본의 미쓰비시전기는 중국 大連에 96년 3월부터 건물용 전기차단기 생산에 들어갈 자사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금 10억엔, 종업원 3백명 규모의 이 회사는 합작형태가 아닌 순수 자회사로 중국에 진출하는 첫 日전기기구 제조업체가 된다.

미쓰비시는 내년 11월까지 공장을 완공, 97년 회계연도에는 25억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獨逸〉

독일의 종합전기회사 지멘스는 대만 경제부와 기술이전 및 합작사업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정부가 추진하는 발전플랜트 교통통신등 인프라정비분야 수주를 확대하려는 지멘스와 기술이전으로 부품의 현지 조달물을 확대하여 인재의 육성등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하려는 대만당국의 의도와 일치한 것이다.

지멘스는 2천년까지 아시아에 35억달러를 투자하여 이 지역의 매출고를 배증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美日歐의 중전메이커 가운데 대만에서 이미 10억달러에 상당하는 시설 기자재를 수주했다.

〈日本〉

일본의 혼다기연공업은 이달중 저가격 휴대용 발전기를 인도의 합작회사에서 역수입하여 판매키로 했다.

휴대형 발전기는 옥상등의 업무용 외에 최근엔 오토캠프등 레저용 수요가 늘어나 홈센터등 소매점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역수입 제품은 출력 5백 50와트의 소형발전기로 동사의 현지 기계메이커인 합작회사 솔리엄 혼다 파워 이큅먼트의 제품을 수입, 혼다기연의 브랜드로 판매. 우선 연간 5천대 전후를 목표로 가전양판점 홈센터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國內〉

정부는 국산신기술(KT) 인정을 신청한 183개 기술에 대한 심사를 거쳐 58개 기술을 신기술 인정대상으로 선정, 공고 했으며 11월말 국산신기술 인정서가 수여되며 국산신기술로 공고된 58개중 중소기업이 18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獨逸〉

독일 지멘스사가 중국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天津市에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합작기업인 지멘스 전력·케이블 天津社의 설립에는 총 1,90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 중국측 파트너인 天津 전기케이블공장과 50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天津 신기술공업단지에 설립된 합작기업은 고압력 폴리에틸렌 전력케이블과 플라스틱 엘리베이터케이블을 연간 1천km씩 생산할 예정이며 합작기업은 설립후 5년간 1억 9천만달러의 중국 국내시장 매출액과 2,5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